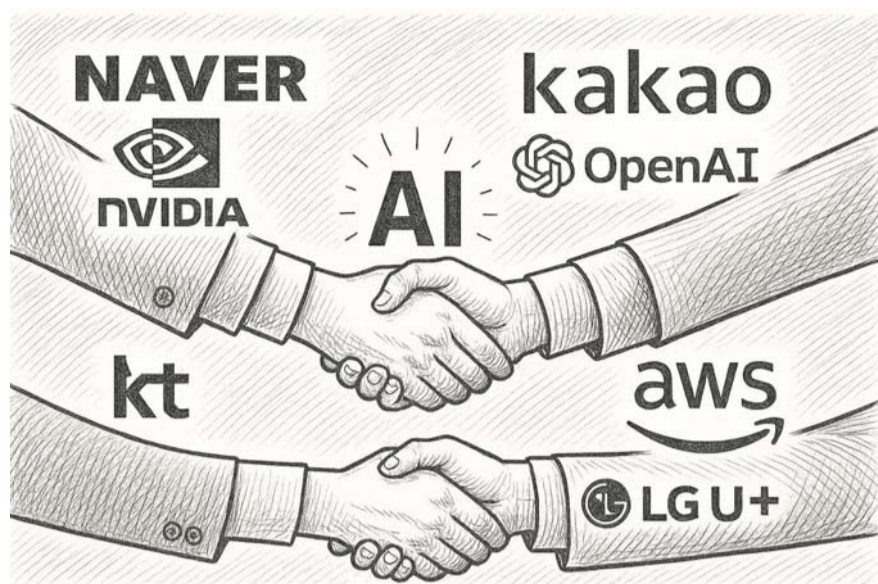


# IT업계, 자체개발 대신 ‘개방형 전략’... “기술격차 극복 우선”

네이버 “엔비디아와 협력 준비 중”  
카카오, 오픈AI 챗GPT 탑재 방침

SKT, 투게더AI에 추가 투자 단행  
KT, MS와 전방위 협력 추진 중

LG U+, AWS 연계 AX 생태계 조성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국내 통신·IT업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이미지.

국내 주요 IT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사 인공지능(AI) 모델 고도화를 위해 거대언어모델(LLM)을 도입하거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기업을 비롯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각각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기술을 자사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연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경쟁력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두 회사는 이날 각각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글로벌투자책임(GIO)은 사내이사로 복귀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며 “엔비디아(NVIDIA)와 다양한 협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함께 동남아 지역에서 소버린 AI(Sovereign AI)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앞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오픈AI와의 업무협약을 공개했다. 카카오는 올해 출시 예정인 AI 에이전트 ‘카나나(Kanana)’에 오픈AI의 챗GPT를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지

난해부터 외부 LLM을 활용한 ‘AI 오케스트레이션(AI Orchestration)’ 전략을 수립해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오픈AI와 함께 카카오 생태계 전반에 적용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이며, 연내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도 유니콘 기업 투자와 글로벌 기술 제휴를 통해 AI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3월, 엔트로픽·퍼플렉시티·트웰브랩스 등 AI 스타트업에 이어 투게더AI에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개인 AI 에이전트 ‘에스터(Aster, A\*)’ 기술 고도화와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전방위 협력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6일에는 AI 교육 협업 계획을 발표했으며,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AI’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한국형 AI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반영한 AI로, 역사·철학·사회 등 국내 콘텐츠 학습에 기반을 둔다.

LG유플러스도 글로벌 협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흥번식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AI 전환(AX)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력하겠다”며, AWS와의 연계를 통해 소버린 클라우드 기반 AX얼라이언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IT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와 손잡는 이유는 자사 AI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AI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전문화된 투자금

액에 따른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체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LLM) 분야는 투자 규모와 학습 데이터의 양, 컴퓨팅 자원 등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외부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개방형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진출 포석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술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기술 의존도가 커지며 기술 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시점에서 기술력의 열세를 빠르게 뒤집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LLM을 조기에 도입하고 서비스에 맞게 최적화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며 “협력을 통해 기술 자산을 확보하고, 빠르게 상용화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넷마블, 김병규 단독체제 전환... “신작 9종으로 글로벌 입지 다질 것”

제14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권영식 대표 사임 등 안건 확정  
확신 있을 때 PC·콘솔시장 도전

권영식 넷마블 각자 대표가 사임하고, 넷마블은 김병규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넷마블은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사옥 지하위 컨벤션홀에서 제1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넷마블은 이날 주총에서 권영식 대표의 사임 안건을 확정하고 넷마블네오의 상장 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김병규 대표의 단독대표 체제전환과 신작 9종 출시도 예고했다.

권영식 대표는 신설된 ‘경영전략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자로 참여한다. 넷마블 산하 개발사의 개발 역량 강화와 게임사업 전략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김병규 넷마블 대표가 서울 구로구 넷마블 사옥에서 열린 제1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넷마블

권 대표는 넷마블 대표 자리는 물러났지만 넷마블네오 대표직은 유지한다.

각자대표에 오른 지 1년 만에 단독대표가 된 김병규 대표는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김 대표는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2024년은 ‘나혼자만 레벨업: ARISE(어라이즈)’, ‘레이브2’ 등 주요 신작의 성공적인 출시와 비용 효율화 효과가 본격화되며 매출 성장과 수익성 회복의 기틀을 마련한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밝혔다.

또 올해 선보일 신작 9종을 통해 실적 개선에 집중,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집중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올해는 넷마블이 재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변곡점의 시기”라며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일곱 개의 대죄: Origin(오리진)’ 등 총 9종의 신작 출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더 견고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이브 지분 매각에 대해 김 대표는 “매각 후 하이브 주가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감안하고 거대한 것”이라며 “방탄소년단이 완전체 활동을 하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넷마블에게도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콘솔시장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트리플A(블록버스터급) 콘

솔 게임을 과감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무모한 결과가 된다면 주주들에게 큰 폐가 될 거라 보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순차적으로 PC나 콘솔도 도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연결 기준 매출 2조6638억원, 영업이익의 2156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 실적을 보고했다. 아울러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6건의 의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넷마블은 이날 주총에서도 기속 최고 재무책임자(CFO)를 사내이사로, 리나 환 텐센트게임즈 사업개발 총괄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재선임하고 강이 LNK세무회계 대표를 사외 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각각 신규 선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국내 ChatGPT 사용률 ‘50.9%’... “정확·구체적 정보 만족”

오픈서베이 ‘AI 검색 트렌드 리포트’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검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가운데, 한국 소비자들이 챗GPT를 포함한 AI 검색 서비스에 대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서베이가 1일 공개한 ‘AI 검색 트렌드 리포트 2025’에 따르면, 국내 응답자의 70.5%가 챗GPT를 알고 있으며 이 중 50.9%는 실제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경험률 33.8%), 일본(25.2%)과 비교해 각각 17%p, 25%p 이

상 높은 수치다. 인지도 면에서도 미국(65.3%)과 일본(56.3%)보다 앞섰다.

또한 한국 응답자는 ‘정보 검색’ 수단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은 감정적 교류나 친구 같은 대화 상대로서의 AI 활용 비율이 특히 높았다. 미국은 두 성격이 비교적 균형 있게 나타났다.

현재 AI 검색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로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 정보 제공’(한국 51.5%)이 가장 많이 꼽혔고, ‘검색 결과 요약’과 ‘추천식 응답’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만

족 요인으로는 ‘잘못된 정보 응답’(한국 38.7%)과 ‘사실 확인 어려움’(34.2%)이 주를 이뤘다.

기존 검색 서비스 이용 행태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정보 탐색 시 ‘네이버’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69.4%에 달했으며, 일본은 야후 재팬, 미국은 구글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10대·20대에서 AI 검색 사용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Z세대를 중심으로 AI 친화적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서현 기자

## 분할 신설법인 ‘티머니모빌리티’ 출범

티머니-카카오모빌리티 ‘맞손’ 핀테크&플랫폼 분야 경쟁력 제고

티머니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잡고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핀테크&플랫폼 기업인 ‘티머니모빌리티’를 새롭게 선보인다.

티머니는 모빌리티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신설 법인인 ‘티머니모빌리티’를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티머니는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모델을 구축해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운수 업계의 동반 성장을 실현한다는 계

획이다.

티머니모빌리티는 ▲모빌리티 핀테크&플랫폼 분야 경쟁력 제고 ▲대중교통 중심 통합 이동 서비스 활성화 ▲전략적 제휴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새 성장 모델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분 투자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공교통 및 공익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계한 국내 관광 활성화, 신규 서비스 발굴 등으로 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김현정 기자 hiki@